

한성숙 국무총리, 『이시바 시게루』前 일본 총리 면담

- 한성숙 국무총리는 9.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최근 한일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 총리는 이시바 전 총리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현재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간 공고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일본 정치 원로인 이시바 전 총리의 변함없는 역할을 당부하였다.
-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가까운 이웃인 한일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안보,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 총리는 이시바 전 총리의 재임기간 중 출범한 양국 간 ‘공동 사회문제 협의체’에서 저출생·고령화, 자살대책 등 주제별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양측은 동 협의체를 통해 구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AI 등 미래산업 분야를 포함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이 계속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이시바 전 총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조정희 (02-2100-2109)
		담당자	서기관	이강일 (02-2100-2132)

